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청 광장에서 개최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총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 매출 '쑥쑥'

도·경제통상진흥원, 총 4억원 이상 성과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홍보지원 도모

“물품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로 구입자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우리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청 광장에서 개최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총 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전북 우수상품 한가위 큰 장터'는 질 좋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104개 기업 300개 품목의 전시·판매로 이뤄진 이번 장터에서는 개장 첫날 1억4000만원, 둘째 날인 8일 2억2000만원, 마지막 날인 9일은 1억1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 매출을 올렸다.

행사에 참여한 Buy전북기업의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보다 더 많이 판매됐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측 관

계자도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한가위 통합 큰 장터 행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의 상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판로 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한가위 큰 장터 행사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바이전북 등으로 분류해서 부스를 설치했으나, 내년도 행사 때는 품목별로 배치하고, 참여한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분석한 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seyb2000@daum.net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순환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열렸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개설했던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큰 인기를 끌었다.

10일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104개 기업 300개 품목을 전시·판매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도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4억 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장터는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한가위 우수상품 장터 인기

순환경제 주체 생상품 판매

4억 7000만원 매출 올려

도내순환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질 좋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보다 판매실적이 높았

다"며 "이런 행사들이 자주 열려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 사회적기업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준비한 물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구입자가 많았다"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한가위 통합 큰 장터 행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의 상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판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판매 행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2013.09.11(수) 전북도민 7면

한가위 통합우수상품 장터 '날개'

도청광장서 진행 도민 호응 총4억7천여만원 매출 기록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도청 광장에서 진행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총 4억 7,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막을 내렸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북 우수상품 한가위 큰 장터”는 104개 기업 300개 품목 전시·판매로 진행됐으며, 이들 생산주체들이 생산하는 질 좋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완주 지사의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장한 한가위 우수상품 큰 장터에는 추석 선물을 구입하려는 많은 도민들의 참여로 첫날 매출액 1억 4,000만원, 둘째 날인 8일은 2억 2,000만원, 마지막 날인 9일은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 매출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에서보다 많이 판매했으며,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판로 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2013.09.11(수) 새만금 6면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 '인기몰이'

도-경제통상원, 104개 기업 300개 품목 전시·판매... 4억7000만원 매출 달성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104개 기업 300개 품목을 전시·판매로 진행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소비자들의 큰 호응속에 총 4억7,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막을 내렸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북 우수상품 한가위 큰 장터’는 도내순환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질 좋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완주 지사의 테이프 커팅식

을 시작으로 개장한 한가위 우수상품 큰 장터에는 추석 선물을 구입하고자 한 많은 도민들의 참여로 첫날 매출액 1억4,000만원, 둘째 날인 8일은 2억 2,000만원, 마지막 날인 9일은 1억1,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 매출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행사가 끝난 후 임실에 위치한 Buy전북기업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에서보다 많이 판매했으며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인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물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구입자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통원 관계자는 “이번 한가위 통합 큰 장터 행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의 상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판로 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가위 큰 장터 행사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바이전북 등으로 분류해 부스를 설치했으나 내년도 행사 때는 품목별로 배치하고 참여한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분석한 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래기자/psl119@hanmail.net

한가위 우수상품 큰 장터 개장

경진원, 우수중소기업 판로개척-홍보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이 지난 7일부터 9일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도내 104개 기업 300개 품목을 전시·판매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진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첫날 매출액이 1억4,000만원, 둘째 날인 8일은 2억2,000만원, 마지막 날인 9일은 1억1,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 매출로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북 우수상품 한가위 큰 장터'는 우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중소

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보다 많이 판매했으며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진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상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판로 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종일 기자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 성료

104개 기업 매출4억7000만원 올려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린 '한가위 통합 전북 우수상품 큰 장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장길호, 이하 경진원)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도청 광장에서 104개 기업 300개 품목을 전시·판매로 진행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가 총 4억7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북 우수상품 한가위 큰 장터'는 질 좋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경진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완주 지사의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장한 한가위 우수상품 큰 장터는 많은 도민들의 참여로 첫날 매출액 1억4000만원, 둘째 날인 8일은 2억2000만원, 마지막 날인 9일은 1억1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에서보다 많이 판매했고,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장수순환경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물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구입자가 많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한가위 통합 큰 장터 행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의 상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판로 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바이전북 등으로 분류해 부스를 설치했으나,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배치하고, 참여한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분석한 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홍기자·ksh9887@

2013.09.11(수) 전주매일 5면

한가위 우수상품 큰 장터 4억7천만원 매출액 달성

도내 중기 가능성 · 판로확보의 장 필요성 확인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104개 기업 300개 품목을 전시·판매로 진행한 '한가위 통합 우수상품 큰 장터'에서 총 4억7,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막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북 우수상품 한가위 큰 장터'는 도내순환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질 좋은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코자 마련됐다.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행사 첫날 매출액 1억4,000만원, 둘째 날 2억2,000만원, 마지막 날 1억1,000만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성원이 컸던 만큼, 판로 확보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확인된 자리였다.

행사가 끝난 후 입실에 위치한 Buy전

북기업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다른 직거래 장터에서보다 많이 판매했으며,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인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물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구입자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한가위 통합 큰 장터 행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의 상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도내 순환경제 주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내년에는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분석한 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